



잉마르 베리만 감독 탄생 100주년 기념

‘스웨덴 영화제’ 개최

15~19일 광주극장
쟁전 다큐 등 8편 상영
18·19일 씨네토크

스웨덴 출신 영화감독 잉마르 베리만(1918~2007)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7회 스웨덴 영화제’가 오는 15~19일 광주시 동구 충장로5가 광주극장에서 열린다.

주한스웨덴대사관 등이 주최하는 이번 영화제에는 베리만의 대표작과 국내 미개봉작 ‘사라방드’, 그의 생전 모습을 담은 다큐멘터리 등 8편이 상영된다.

세계 영화 예술사에 큰 획을 남긴 베리만은 첫 작품 ‘위기’(1946)부터 대표작 ‘제7의 봉인’, ‘산딸기’ 등 60여 편의 영화를 연출했다. ‘장문을 통해 어렵듯이’ 등 그의 작품 4편이 아카데미상에 선정됐고 지난 1997년 칸 영화제는 50주년을 맞아 베리만에게 황금종려상 명예상을 수여했다. 신과 죽음 등을 다룬 베리만의 주제의식과 미학적 스타일은 우디 앨런, 마틴 스콜세지, 기에르모 델 토로 등 후대 영화인·예술인에 영감을 줬다.

15일 오후 7시 10분 엘레노어 칸테르 주한스웨덴대사관 공관차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이 열리고 이어 개막작 ‘베리만 아일랜드’(2006)가 상영된다. 감독 마리 뉴레로드가 베리만의 85세 때 모습을 담은 이 다큐멘터리는 베리만이 말트해 포피섬에 꾸린 자신만의 세상을 최초로 공개했다. 모든 상영작 앞에는 베리만의 인터뷰 영상을 넣어 해당 작품에 얽힌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준다.

베리만 하면 많은 이들이 떠올리는 ‘제7의 봉인’(1957)은 칸 영화제 심사위원 특별상이 주어지며 세계영화사에 걸작으로 남았다. ‘제7의 봉인’과 같은 해 개봉한 ‘산딸기’는 베를린영화제 황금곰상으로 선정되며 베리만의 또 다른 대표작으로 꼽힌다. 꿈과 거울과 환상 속에서 삶의 진실을 마주하는 노교수의 모습을 빅토르 세스트림의 연기로 만난다. 18일 오후 3시 영화 상영 뒤 ‘열세살 수아’의 메가폰을 잡은 김



‘화니와 알렉산더’(위), ‘제7의 봉인’.

희정 감독(조선대 교수)과의 대화 시간이 마련돼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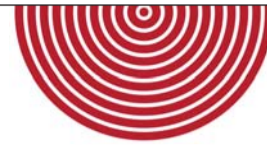
2003년 스웨덴공영방송을 통해 전파를 탄 ‘사라방드’는 베리만의 유작이 됐다. 4년 뒤 베리만은 89세의 나이로 숨을 거뒀고 그의 장례식에는 바흐의 ‘사라방드’가 연주됐다.

이외 아카데미상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을 받은 ‘화니와 알렉산더’(1982)와 ‘모니카와의 여름’(1953), ‘페르소나’(1966), ‘가을 소나타’(1978)도 관객을 기다리고 있다. 영화제가 끝나는 19일 오후 7시 20분에는 ‘가을 소나타’를 보고 문학평론가 신형철 조선대 교수와 이야기를 나눈다.

영화제 기간 동안 베리만의 작품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잉마르 베리만 연대기’ 전시가 광주극장에서 진행된다. 베리만의 영화와 사진, 글, 극작품과 같은 저술 등 방대한 창작물을 연대순으로 살펴볼 수 있다. 무료 관람이며 영화표는 영화제 기간 매일 오전 10시부터 현장 배포한다. 문의 062-224-5858, cafe.naver.com/cinomagwangju.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아트:광주:18



15~18일 김대중컨벤션센터

국내외 미술작품 한자리에

중·일·인도·佛 등 10개국
102명 작가 부스 오픈
국내외 갤러리 71개 참여
강연·탁본체험 등 다채
고3 수능생 무료 초청



2018 광주국제아트페어에서 판매되는 작품들. 로버트 인디아나 작 ‘Hope’(왼쪽)와 제프 쿤스 작 ‘Ballon Dog’.

국내외 다양한 작품을 만날 수 있는 미술 축제가 열린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광주국제아트페어가 15일~18일까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2, 3홀에서 개최된다.

광주국제아트페어(이하 아트광주18)는 개성 넘치는 작가들의 작품을 구매할 수 있는 미술 장터이자, 국내외 미술계 흐름을 살필 수 있는 축제이기도 하다.

이번 아트광주18에는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인도, 프랑스, 미국 등 10개 국가에서 71개 갤러리(해외 갤러리 18개)가 참여했으며 공모를 통해 선정된 102명의 작가 부스도 오픈한다. 참여 화랑은 조선화랑, 박영덕갤러리, 표갤러리, 유엔갤러리 등 국내 대표 갤러리들이며 나인갤러리, 자리아트, 백재 갤러리, 이화 갤러리 등 지역 화랑도 참여했다.

해외 갤러리 중에는 제프 쿤스와 로버트 인디아나, 김창열 등 스타작가들의 작품을 출품한 뉴욕의 SM Fine Art Gallery가 눈에 띈다. 또 폴란드의 갤러리 브라, 프랑스 라 빌 아 데자르, 일본의 레타라 갤러리와 기노쇼기카구 갤러리, 중국의 스페이스 스테이션 등 해외 갤러리가 소개하는 작가들의 작품은 세계 미술계 트렌드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특별전으로는 독창적인 예술세계를 이어가고 있는 동북아 3개국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만나는 ‘한·중·일 청년작가 초대전’을 준비했다. 박성완·설박·김나을·임



2018 광주국제아트페어가 오는 15~18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지난해 열린 행사 모습.

<광주국제아트페어 조직위원회 제공>

용현·지근욱·최신·수령스·폐기찬·유키와 타나베·카구토 타카하시 등 모두 12명의 작가가 참여한다.

강연도 열린다. 윤진섭 국제미술평론가협회 부회장이 16일 오후 2시 ‘한국 현대 미술과 단색화’를 주제로, 김영석 마니프 조직위원회 대표가 ‘한국 아트페어와 미술시장’(17일 오후 2시)을 주제로 강의한다.

이밖에 탁본체험(16~17일 오후 1사-

3시)과 해외 청년작가와 함께 작품을 만들어보는 미술체험(16~17일 오후 4시~5시, 18일 오전 11시~12시), 도슨트 프로그램 등도 마련했다.

한편 김대중 컨벤션센터 우리홀에서 국내 55명의 청년작가로 구성된 영아티스트 페스티벌도 함께 열릴 예정이다.

조직위측은 이번 행사가 대학수학능력 시험이 치러지는 15일에 개막하는 점을 감안, 교육청과 연계해 광주 지역 고3 수

험생들을 행사기간 내 무료로 초청한다. 티켓 가격 1만원(4일간 무료 관람)

아트광주18 장유호 총감독은 “이번 아트페어에서는 작품을 거래하는 미술시장에서 더 나아가 미술체험과 이벤트, 강연 프로그램, 먹거리 등이 포함돼 국내외 컬렉터뿐만 아니라 일반 관람객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문화 향유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062-223-1532-4.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문화전당, 개관 3주년 심포지엄 15·16일 개최

아시아 문화의 정체성은 무엇일까? 나아가 아시아 문화는 어떻게 읽어야 할까?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개관 3주년을 맞아 심포지엄을 열고 아시아문화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답을 짚어본다. 15일과 16일 ACC문화정보원 국제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은 한국, 대

만, 독일, 미얀마 등 30여 명의 학자와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첫째 날은 ‘아시아 지역 연구에 대한 논의와 의의’를 주제로, 우즈베키스탄 국립 문화예술대학 기약연구학과장으로 재직 중인 타쉬마토프 우라잘리 교수가 ‘아시아의 문명과 음악’에 대해 연구 사례를 소개한다.

이후 ‘아시아 지역연구에 대한 성장과 전망’을 주제로 첫 번째 세션이 진행되며 두 번째 세션은 ‘의례와 의식’이라는 주제로 공룡의 종교, 언어, 기억을 지닌 이들이 공유하는 문화적 기제와 의미에 대해 이야기한다.

마지막 세션은 ‘여성과 이주’라는 주제를 통해 하카 음악과 기체문화, 디아스포라 음악가 등을 살펴봄으로써 아시아를 읽는 방법론을 모색한다.

둘째 날에는 아시아 문화유산과 대중문

화에 대한 동시대적 담론을 조명한다. 네 번째 세션은 ACC아시아문화연구소에서 진행한 표류기, 무형문화유산, 소수민족 생활양식 등 연구과정을 살펴보는 시간이 다.

마지막 세션은 ‘대중문화와 미디어’라는 주제를 토대로 아시아 사회비판 영화, 극장 문화, 미디어 문화, 세계 속 아시아 문화 부상 등에 대해 살펴본다. 무료 참여. 문의 062-601-4447.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국제보청기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

062 673 5858 (모발모발) 매주 화요일 휴무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아파트 상가2층(대광여고 옆) 일요일 정상 영업